

SK케미칼 혈우병치료제 ‘엡스틸라’ 캐나다 시판 허가

SK케미칼(사장 박만훈)은 혈우병 치료제 ‘엡스틸라’가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엡스틸라는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다. 2009년 호주 제약사 CSL에 기술수출했다. CSL이 생산공정개발, 글로벌 임상 및 허가 신청을 해 왔다.

엡스틸라는 국내 기술 기반 바이오 신약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 달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인체약품위원회로부터 시판 허가 권고를 받아 유럽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EMA 인체약품위원회 허가 권고가 나오면 보통 1~2개월 뒤 최종 판매승인이 나온다. 스위스, 호주 등에서도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A형 혈우병은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13개 인자 중 제8인자의 결핍 혹은 결핍으로 발생하는 선천적 출혈성 장애 질환이다.

A형 혈우병 환자들은 근육 관절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나타나거나 지속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남성으로 약 6000명 중 한 명이 선천적으로 혈우병을 갖고 태어난다.

SK케미칼은 엡스틸라에 기존 혈우병 치료제와는 달리 두 단백질질을 하나로 완전 결합시키는 ‘단일 사슬형 분자구조’를 적용했다. 분리된 두 개의 단백질을 연합한 기존 혈우병 치료제보다 안정성이 더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엡스틸라의 글로벌 임상결과 A형 혈우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중화항체반응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화항체반응은 약물의 효과를 저해하는 항체가 형성되는 부작용이다.

투여 횟수를 기존 치료제의 절반인 주 2회로 줄인 것도 엡스틸라만의 특징이다. SK케미칼은 CSL의 글로벌 판매에 따른 경영상태(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헤스테크놀로지 자동주사바늘 제거기

“주사바늘 손대지 않고 자동 제거 ... 2차 감염 예방”

병·의원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다. 약물을 몸속에 투여하거나 채혈해야 할 때 사용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한 번만 사용된다. 간호사가 일일이 주사바늘을 빼내 폐기한다. 손으로 하다 보니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헤스테크놀로지는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자동 주사바늘 제거기(NRI)’를 개발했다. 이 장비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자동으로 주사기와 바늘을 안전하게 분리한다.

◆**주사바늘 한 번에 ‘썩’**
국내 병·의원에서는 주사바늘을 분리할 때 간호사가 직접 빼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플라스틱 바늘 폐기 용기 안에 있는 홈에 주사기를 걸어서 바늘을 버린다. 최아연 헤스테크놀로지 대표는 “가족 중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있어 2차 감염 사건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주사기의 종류와 크기에 맞춘 안전장치 개발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스테크놀로지의 자동 주사

사용한 주사기 꽂으면 기계가 바늘만 분리
美·日 등에 수출 추진

바늘 제거기는 투입구에 사용한 주사기를 꽂으면 기계가 알아서 바늘을 분리한다. 기기 전면부에 5인치 액정표시장치(LCD) 터치스크린을 통해 현재 상태와 바늘의 분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된 주사바늘 숫자도 하루, 한 달 단위로 표시한다. 최 대표는 “주사 바늘을 절단하거나 녹이는 대신 압착고정된 뒤 기울여 바늘만 빼내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제조 관련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IP)만 15개를 보유 중이다.

◆**“원가와 성능 꼼꼼히 확인”**
최 대표는 지난 2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최 대표가 의료 기기 제조업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만류하는 사람이 많았다. 경험이 부족한 31세의 초보 사업자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첫 시제품을 만들



최아연 헤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자동 주사바늘 제거기(NRI)’의 작동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때만 해도 주위의 우려가 들어맞는 듯했다. 50만원짜리 부품을 500만원을 주고 사거나, 휴대용 제품인데 소재가 너무 무거워 들 수 없던 일도 있었다. 최 대표는 “부품 업체나 제조업체를 달래도 만들고 써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때의 경험 때문

에 지금은 원가부터 완제품 성능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버릇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리브콜’ 이어져**
요즘 대전 대덕구 벤처타운 헤스테크놀로지 본사에는 협력업체 다섯 곳 직원들까지 복직한다. 내년 초 납품을 목표로 신제품 최종 점검을 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참가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제품을 눈여겨본 국내 한 대학병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킴스아이앤씨 - ‘바스셀’ 다용도 무선수속실정소기 (031)457-3107 △ 루미르-쉴로로 작동하는 LED램프 (02)6959-8224 △ 헤스테크놀로지-주사바늘 자동제거분리배출기 (042)487-7962 △ 지앤아이솔루션-켄 쉘드 에어 (02)2624-3025

이 초기 물량으로 50대를 주문했다. 미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바이어들과도 상담 중이다. 최 대표는 “국내 개인·대학병원 10여곳에서 주문 의뢰가 들어온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른 일정이 어려울 정도”라며 “전용 생산공장 설립과 전문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If you feel missed out ...

한경·THE WALL STREET JOURNAL

Market

Investment
Careers
Business
English Learning
Opportunities
Job seeking

wsj.hankyung.com

If you subscribe to The Korea Economic Daily online, you can also have full access to The Wall Street Journal

자금난 넘긴 쏘리드 ... 이재명 시장 덕?

(팬택의 모기업)

◆**이재명 시장 덕에**
180억 유상증자 성공

통신장비업체 쏘리드의 정준 대표(벤처기업협회장·사진)는 지난 10월 2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운영자금으로 쓸 돈과 만기가 돌아오는 빚 일부를 갚기 위해서였다. 부도 난 스마트폰업체 팬택을 인수하느라 정 대표는 자금이 절박하게 부족했다. 쏘리드는 지난해 팬택 인수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는 지난 10월 중순 주부배정 방식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행한 쏘리드 주식(2147만여주)의 절반에 가까운 1000만주를 새로 발행한다는 내용이였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 은행권 추가 대출

은 어려웠다.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증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주주들이 쏘리드 신주를 받는다 해도 차익을 남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자 발표 전후로 4000원 가량이었던 쏘리드 주가는 불과 며칠 만에 2000원대로 ‘반 토막’이 됐다. 이 때문에 증자 발행가는 1815원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급박해진 것은 지난 달 하순이었다. 청약일을 앞두고 주가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된 영향이었다. 정 대표가 성남창조경영CE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 수혜

를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다. 이 시장의 지지율이 오를수록 쏘리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반복됐다.

증자 대금이 납입된 지난 12일 쏘리드 주가는 4130원까지 올랐다. 쏘리드 주주들이 신주를 받아 이 가격에 바로 판다면 두 배 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 주주들에게 배정된 신주는 결국 동났다. 쏘리드는 181억원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정 대표는 팬택의 부활에 주력하고 있다. 팬택이 살아야 이 회사 지분 96%를 보유한 쏘리드도 살 수 있어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돌며 팬택의 해외 파트너를 찾는 중이다. 그는 팬택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의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40개로 확대

중소기업청이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성과가 저조한 부실 대학은 대대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해 창업자 육성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34개인 창업선도대학 수를 4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창업선도대학이란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해 창업기업과 창업인 육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부실 선도 대학이 지원 예산 삭감 등 운영적외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이 프로그램이 대학 간 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창업 시장 흐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올해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차 이상 하위 30%(미흡 등급) 대학에 주의 조치를 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대학을 ‘자동 퇴출’하기로 했다.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창업 전담조직과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내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 대학과 바이오 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해 6개 이상 대학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전체 창업선도대학의 절반 이상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휴롬, 한방차 전용 ‘티마스터’ 내놔

휴롬이 한국형 티포트 ‘티마스터’ (사진)를 내놨다. 원액기, 블렌더에 이은 휴롬의 세 번째 제품이다. 티마스터는 차의 성격에 맞게 우려내는 기능이 있다. 과일차나 꽃차는 10분, 한방차는 30분, 약당은 60분 등으로 설정돼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재료의 영양을 보존하면서 맛있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다.

휴롬은 차 원료도 직접 공급한다. 경남남양읍 초원구 소와 함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한방차를 개발했다. 삼화버섯차, 초석잠차, 쌍화차, 우지해 재료의 영양을 보존하면서 맛있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28일 노후설계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2016 행복한 노후설계 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금융·보험 △재테크 △실버재활·의료보조기기 △실버용품 △스프랜차이즈·창업 △전원주택·시골주택 △실버여행·레저 △실버헬스케어 △상조·장례 △실버 관련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02)780-0366